

수입차 전문 수리
블리카 대표 박형수
 M. 010-8998-1048 H. 063-244-1048
 F. 063-244-1043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943-9

공감뉴스 전·북·을·세·계·로

전북타임스

The JeonBuk Times

그랜드자동차
 운전전문학원
 대표원장 이장섭
 Mobile. 010-4652-7327
 Tel. 063-717-4444 Fax. 063-274-4445
 E-mail. leewww2@naver.com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공위발위로 1614(상림동 60)

대표전화 (063)282-9601
 인터넷 jeonbuktimes.co.kr

2025년 1월 7일(화) 제 3012호



2036올림픽 현장평가단 환영 2036 하계올림픽 현장평가가 시작된 6일 새만금 33센터에서 평가단이 도착하자 전북특별자치도 유치에 희망하는 많은 도민들이 손을 흔들며 평가단을 환영하고 있다. <사진=전북도>

2036 전주올림픽 현장 실사...본격 유치전 돌입

7일까지 전주, 군산 등 4개 시군 평가단 방문 실사 전북만의 차별화된 지방도시연대, K-컬처 등 강점 부각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 선정에 대한체육회의 현장실사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전북에서 진행되고 있다. 전주는 서울과의 치열한 유치 경쟁 속에서 전북만의 차별화된 지방도시 연대, K-컬처,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전략을 평가단에 선보인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11월 12일 대한체육회에 올림픽 개최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전 타당성 조사와 경기장 적합성 검토 등을 거쳐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이번 실사는 전주, 군산, 무주, 완주 등 도내 4개 시군과 5개 주요시설을 방문해 올림픽 개최 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강점을 검토하는 자리다.

평가단은 사전 브리핑을 시작으로 ▲철인3종, 마라톤수영, 조정/카누, 비치발리볼 등 수상·해양종목이 예정된 새만금 일대(비치 스포츠 콤플렉스) ▲축구·농구·배구 경기 등이 개최되는 전주와 완주(어반 스포츠 콤플렉스) ▲태권도, 펜싱, 산악자전거 경기가 개최되는 무주(밸리 스포츠 콤플렉스)를 실사한다. 각 시설의 인프라, 주민의 지지도 등이 평가의 주요 항목이다.

이와 관련 전북자치도가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 유치를 내실 수 있었던 데에는 IOC가 원하는 올림픽 패러다임의 변화가 주요했다. IOC는 지난 2014년 '올림픽 어젠다 2020'을 발표하며 미래유치위원회를 도입하고 나라간, 도시간 공동개회를 허용했다. 기존 시설 활용하고 분산 개최 및 지역 연대를 통해 지속가능성과 환경적 책임을 강조하게 된 것이다.

전북자치도는 기존 경기장을 최대한 활용하고, 올림픽 이후에도 활용가능한 다목적 시설 경기장 및 친환경 임시 경기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지방도시 연대를 통해 광주, 전남 고흥, 충북 청주, 충남 등 다른 지역과 협력하며 RE100 기반의 신재생에너지 활용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한다. 또한 전문문화와 K-컬처를 결합해 독창적이고 세계적인 올림픽을 목표로 한다.

전북은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전국 1위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한 친환경대회를 실현할 준비가 돼 있으며 한옥과 판소리, 비빔밥 등 K-컬처의 뿌리를 전 세계에 선보이는 등 문화와 전통을 강조한 문화올림픽을 치르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평가위원회의 서면 및 현장평가를 토대로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면 국제위원회와 이사회, 대의원총회 등의 절차를 거쳐 2월중 국내 후보도시를 선정할 예정이다. /김관 기자

전북, 농생명산업 혁신 지구로 도약

[전북특별법 시행 주요 특례 ... ② 농생명산업 선도 특례]
 -남원 에코스마트팜 등 농생명산업지구 선도지역 7개소 선정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을 통한 새로운 모델 구축
 -농지법 특례 등 행정기관 권한이양 및 규제 완화 본격 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농생명산업 특례 부여 등 전북특별법을 통해 대한민국 농업의 혁신적 성장을 도모한다.

농생명산업은 도가 가장 경쟁력 있는 분야로, 농생명산업지구를 중심으로 농업 생산과 연계된 산업 집적화 및 기업 협력 모델을 구축해 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규제 완화를 통한 신속한 개발, 다양한 산업의 집적화 단지 조성,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모델 등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시험하고 도전할 기회의 땅 농생명산업지구를 살펴본다. <편집자주>

▲미래농업 비전, 농생명산업지구 선도지역 7개소 선정
 도는 전북특별법을 통해 농생명산업지구 선도지역 7개소를 지난해 9월 선정하고, 지

구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농생명산업지구는 농업생산연계형과 혁신산업중심형으로 나뉘며 각 지구는 연관산업 집적화, 그린바이오분야 신산업 등을 선정 및 육성한다. '소각장 폐열 활용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는 국내에서 최초로 조성되는 농업생산연계형 농생명산업지구다. 남원시 대산면 일대 60.1ha 규모에 2029년까지 1천121억원을 투입해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취·창업), 스마트팜혁신단지(가공·유통) 등을 육성한다. '순창 미생물산업지구'는 전국 최초로 50만 건의 유망미생물과 생물자원을 보관할 수 있는 유망미생물은행 등 농생명자원을 활용해 바이오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한다.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을 통한 새로운 모델 구축
 농생명산업지구는 특성화된 산업화 기반을 토대로 기업과 상생협력 모델을 기획 단계부터 수립한다. 생산시설 스마트화, 농산물 제조공공을 위한 지역 내 관련기업과 OEM 및 공장 신축, 기업의 수요에 맞는 상품개발 및 상품마케팅 지원 등을 추진한다. 남원 ECO 스마트팜지구는 첨단농업 기술로 데이터 기반 농업 시스템을, 고창 김치지구는 원료 공급협약과 기술이전을 추진한다.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 및 규제완화 본격 시행
 전북특별법 농생명산업 특례분야는 1차로 12개 조문을 발굴해 본격 시행된다. 지구 내 농지법 특례(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지전용허가), 농어촌정비 특례(20만㎡ 이상 마을정비구역지정)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된다. 이로써 규제를 완화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역 주민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해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개발계획이 가능하다. /최준호 기자

이재명 "최상목 권한대행 내란 책임 물어야"... 탄핵 시사

최상목 권한대행 겨냥 '국정 책임 목살' 비판
 윤석열 체포 협조하지 않아, 질서 파괴 행위 책임 물어야
 민주당, 대통령 경호처 사태 관련 책임론 제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겸 기재부장관의 탄핵을 시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최 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심각하게 직무대행의 질서 파괴·내란 행위에 대해 또 하나의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다'며 탄핵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이 질서를 파괴하고 왕이 되려 하다가 죄수의 길을 가게 됐다"며 "사태를 수습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 직무대행이

똑같이 질서 파괴 행위를 하는 것 같다"고 최 대행을 직격했다.

이 대표는 "법원의 정당한 영장 발부에 따라 체포를 집행하는 데 대통령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 저항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를 제지해야 할 직무대행이 오히려 지원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든다"고 최 대행의 탄핵 사유를 지적했다.

또 "예를 들어 경호처가 불법적으로 법원의 영장을 저지하면 당연히 (경호처장에 대한) 직무배제나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하지만 오히려 최 직무대행에게 경호처 지휘 요청을 했

데도 목살했다는 등의 보도가 나오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질서를 파괴해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또 하나의 내란 행위"라며 최 대행을 맹비난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의총 뒤 국회 브리핑을 통해 "최상목 권한대행은 앞에서는 국정 안정을 외치며 뒤로는 내란 수괴를 지키고 있었나? 최상목 대행은 제2의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든다"고 최 대행의 탄핵 사유를 밝혔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직무유기와 반헌법적 행위는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명심하라"며 탄핵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김영목 기자

http://council.jinan.go.kr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제9대 진안군의회 | 군민과 함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진안군의회!

진안군의회
 http://council.jinan.go.kr

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 더 특별한 100년 포부 밝혀

김관영 도지사, 신년 기자회견서 도민의 성취와 행복을 위해 쉼 없이 전진 약속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 을사년 새해와 함께 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을 맞아 전북의 더 특별한 100년을 향한 기대와 희망을 품고 힘차게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을 이어가며, 도민과의 약속을 지켜 전북경제를 살려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도전경성의 자세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겠다'는 게 전북특별자치도의 의지다.

김관영 도지사는 6일 전북특별자치도청 기자회견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처음 각오 그대로, 한계를 넘어 미래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25년 민선 8기 김관영 도정은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 비전 아래 ▲전북 도민경제 부흥 ▲농생명 산업 수도 ▲문화·체육·관광 산업거점 조성 ▲새만금 도약·균형발전 ▲도민행복·희망교육의 5대 목표를 유지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미래첨단산업, 전북특별법 대표 특례사업, 새만금 SOC, 주요 공모, 현안 법안 등 2025년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전북자치도는 첨단바이오산업의 생태계 구축, 이차전지 산업의 혁신 생태계 고도화, 방위산업 연구개발 확대, 그리고 태양광·풍력·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미래첨단산업 육성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전북특별법 대표 특례사업으로는 올해 농생명산업지구 2개소를 지정하고 문화산업진흥지구, 산림복지지구, 친환경 산악관광지구를 지정 및 고시하는 등 지역 고유의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산악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올라,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 새만금 신항 2026년 개항 준비,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공사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고, 도민의 염원인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와 제2중앙경찰학교 입지 선정 공모에도 도정 역량을 집중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김 지사는 "전북에 각종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을 바탕으로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하겠다"며 "전통문화의 수도인 전북을 세계에 알리고 새만금의 드넓은 부지를 활용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 을사년 새해와 함께 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을 맞아 전북의 더 특별한 100년을 향한 기대와 희망을 품고 힘차게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해 글로벌 명품도시로 성장하는 전북자치도의 비전과 역량을 대한민국과 세계 무대에 선보이겠다"고 강조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한 제·개정을 추진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이밖에 전북자치도는 분야별 중점 추진계획으로 ▲특별한 100년을 만드는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소상공인이 미소 짓는 민생경제 등을 제시했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과 세계 속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도민과 함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내란수괴 체포 막아선 조배숙 의원

내란수괴 체포 막아선 조배숙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윤석열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 소속 친윤 의원 40여 명이 1월 6일 오전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였다.

국민의 뜻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내란수괴 방패막이를 자처한 내란공범에 익산 출신 5선 조배숙 의원도 끼어 있었다.

조배숙 의원은 윤석열 탄핵안 표결에 불참했을 뿐 아니라 비상계엄 상실특검에도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내란동조 망발로 도민들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겼는데, 끝내 전북 민심을 배신하고 윤석열 개인의 방패막이가 되기로 작정한 것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변호하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짓밟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을 대변할 자격이 없다. 내란공범 자임하는 국민의힘은 해체가 답이다.

이에 동조하는 조배숙 의원은 도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당장 의원직을 사퇴하라. 수사당국은 내란공범들과 조배숙을 당장 현행범으로 체포하라!

2025년 1월 6일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전북 지역 희생자, 가족 품으로

도, 희생된 6명 시신 인도 마쳐 장례·정차 밟고 있어...지방세 감면 등 지원 방안 마련

전북자치도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전북지역 희생자 6명에 대한 시신이 모두 가족에게 인도됨에 따라 조문을 비롯한 진심 어린 위로와 지방세 감면과 같은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지역 사고 희생자 유가족은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희생된 6명에 대한 시신 인도를 마쳐 장례를 마쳤거나 현재 장례 절차를 밟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전북 도민 외에도 희생자 가운데 지역과 연관이 있는 희생자 6명 또한 유가족의 뜻에 따라 시신 인도를 마쳤으며, 빈소를 꾸려 장례를 치르고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사고 희생자의 장례 절차가 이취침에 따라 지난 2일과 4일 빈소를 찾아 조문을 가졌으며, 사고로 큰 슬픔에 빠진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전북자치도는 오는 11일까지 합동분향소를 연장 운영하는 등 희생자 유가족과 도민의 애도 정서를 함께 하고 있다. 지난 5일 기준 조문을 다녀간 도민들의 발길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해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및 환급 조치를 이행한다. 과제 정보에 대한 자료가 파악되는 대로 전북자치도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세금을 환급할 예정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를 잃은 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전북특별자치도는 유가족분들이 이 어려운 시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전북자치도, 대설·한파·강풍 대비 총력 대응

전북특별자치도는 6일, 도민안전실장 주재로 도 협업부서 및 14개 시군과 함께 대설·한파·강풍 대비 주요 대처 상황을 논의·점검하는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7일부터 9일까지 전북 전역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적설량은 5~15cm이며, 전북 서해안과 남부 내륙 일부 지역은 20cm 이상의 폭설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강풍과 함께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소량의 강수(5mm 미만)도 동반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회의에서는 13개 협업가능 관계부서와 14개 시군이 참여해 대설 및 한파에 대비한 다양한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대처 방안으로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교량, 터널, 고갯길, 경사로 등 취약구간 및 상습결빙구간에

대해 제설제 중점살포 ▲습설대비 5대 취약분야(붕괴, 전도, 미끄러짐, 정체, 고립)에 대한 예찰 강화 및 안전조치 실시 ▲한파 취약계층 관리방안 ▲한파 및 응급대피소 개방시간 확대 ▲임시주거시설 및 구호물품 비축 점검 등이 논의됐다.

특히, 11월 중부지방 대설 당시 발생한 인명사고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관계부서와 시군이 협력해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오택림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금요일까지 지속될 대설·강풍·한파에 철저히 대비해 인명 피해와 시설 피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며,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선제적이고 과할 정도로 철저한 대비를 통해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정안, 제정법과의 체계 및 조문 정비를 위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표했다.

윤 의원은 "최근 기후위기 심화로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산림재난의 예방과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라도

임도의 확충이 시급하게 요구된다"며 "오늘 발표한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돼 우리나라가 임업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목 기자

윤준병 의원,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윤준병 의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목재의 안정적 공급과 산림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임도의 확충 및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정법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산림은 국내 온실가스의 최대 흡수원으로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산림경영 및 관리를 위한 국내 임도의 설치 수준(임도밀도)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실제 윤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우리나라 국유림 등에 설치된 임도 길이는 25,848km로, 전체 산림면적 629만 8천ha와 비교해 밀도는 4.1m/ha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최근 기후위기 심화로 인해 산불 등 산림재난이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산림재난의 예방과 신속한 대처에 반드시 필요한 임도가 사유림 편입부지 산주(山主)의 부동으로 설치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임도의 기능을 제때 구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임도의 설치·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임도의 보호와 산림경영 이용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임도의 계획제도 정비 및 임도 설치 전 시행하는 타당성 평가와 임도 설치의 전문성 강화 ▲임도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을 위한 근거 마련, ▲설치된 임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 및 안전진단, 사후조치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등이 규정돼 있다.

이와함께 윤 의원은 제정법과 함께 임도 노선에 포함된 토지를 공익사업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토지의 수용·사용 근거를 마련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

한랭질환 예방수칙

생활습관

**가벼운 실내운동, 적절한수분섭취
고른영양분을 가진 식사 하기**

실내환경

**실내적정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건조해 지지 않도록 하기**

외출 전

**체감온도 확인 하기
(날씨가 추울 경우, 야외활동 자제)**

외출 시

**따뜻한 옷(장갑, 목도리, 모자
마스크등) 입기 무리한 운동
하지 않기**

을사년 새해, 안전한 전주 만들기 행정력 집중

전주시, 재난·재해 예방 대응체계 구축, 맞춤형 시설물 안전점검도 꼼꼼히 추진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정한 전주시가 을사년 새해를 맞아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전주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시는 올 한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2월까지 시 전부와 산하기관 담당 시설물 538개에 대한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건축, 전기, 가스, 소방 등 분야별 안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시정 가능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보수·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시기별·계절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기간'에도 적극 참여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시기별·계절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시설물 안전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및 안전사고, 재해 예방 시설, 화재 취약 시설 등을 중점 점검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명절 전에는 전통시장과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전선과 소방시설을 중점 확인하는 등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귀성객의 교통안전에 관한 점검도 이뤄진다.

이후 시는 여름철 하천과 저수지 등 재해 예방 시설 작동 상태 및 침수 우려 지역 점검을 실시하고, 각종 문화행사 및 축제가 펼쳐지는 가을철을 앞두고 야영장과 문화재 등 화재 취약 시설을 중점 점검키로 했다. 겨울철에는 전통시장과 요양시설 등 화재 취약 시설에 대한 점검이 이뤄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정한 전주시가 을사년 새해를 맞아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전주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며 실시간 재난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등 재난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전주시 건설안전국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전주교육지원청, 미래세대 위한 협력 강화 '맞손'

생애 전주기 창업생태계 구축과 다양한 미래 진로 모색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도모키로

전주시와 전주교육지원청이 전주기 창업 생태계 구축과 다양한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 등 미래세대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시와 전주교육지원청은 6일 시청 3층 회의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김정기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복합시설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미래세대가 아동·청소년기에 창의력과 기업가 정신을 함양함으로써 청년기에 지역 내 창업생태계로 자연스럽게 진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생애 전주기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창의·창작·창직 교육을 통한 창업 역량 육성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주요 협약내용은 ▲학교복합시설 사업

추진을 위한 대내외적 여건 조성 ▲사업 시행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사업 추진 방안 마련 및 상호 협력관계 조성 ▲전주시민 대상 창의·창직 교육 지원 등이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지역에서 나고 자라서 청년 창업가로 성장하고,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해 독자적인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로컬 창업환경을 조성해 지역 정착 기반 마련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가 지원하는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고, 지역에서 필요한 다양한 교육·문화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시와 교육지원청은 학교복합시설을 구축해 진로 진학 상담과 창의창직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



전주시와 전주교육지원청이 전주기 창업생태계 구축과 다양한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 등 미래세대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주민을 위한 교육·문화시설 등을 지원하게 된다.

김정기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전주시와 긴밀히 협력해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통해 지역사회와 교육기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인재를 양성해 창업생태계를 공고히 구축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보건소, 인플루엔자 유행 속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당부

지난해 12월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 유행 상태 지속...예방접종·개인위생수칙 준수해야

최근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의 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가 예방접종과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전주시보건소는 인플루엔자 환자 수 증가에 따라 지난해 12월 20일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이후 전주시역 유지원과 어린이집, 장외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해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의원급(300개소)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최근 4주간 38℃ 이상 갑작스런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을 겪는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52주차(12월 22일~28일)

의 경우 외래환자 1000명 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73.9명으로 전주(12월 15일~21일) 대비 136% 증가했다.

특히 연령별로도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52주차 기준으로 13~18세(151.3명)에서 가장 발생률이 높았고, 7~12세(137.3명)와 19~49세(93.6명)가 그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 인플루엔자는 ▲고열(38~40℃)과 마른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 ▲두통과 근육통, 피로감, 쇠약감, 식욕부진 등의 전신증상을 보인다.

대부분 경증으로 자연 치유되지만 노인·임산부, 만성질환자 등은 합병증 발생하거나 기저질환이 악화돼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일부는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적절한 진료와 검사, 치료를 받

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감염된 사람의 호흡기 비말을 통해 전파되는 질병의 특성상 ▲기침 예절 실천 ▲올바른 손 씻기의 생활화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하기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의료기관에 방문해 적절한 진료 받기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현재 인플루엔자뿐 아니라 백일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등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이 계속해서 유행하고 있다"면서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아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전주시민, 특히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지금이라도 꼭 접종을 서둘



러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지역 공인중개사들, 시에 2백만원 기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전주시에 성금 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김규원)는 6일 전주시를 방문해 추위에 힘들여하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

전주지역 공인중개사들은 지난 2023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3년 연속 전주시에 성금을 기부하는 등 매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김규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회장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함께 해준 덕분에 성금을 전달할 수 있었다"면서 "추운 겨울 여러모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주지역 공인중개사들은 지난 2023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3년 연속 전주시에 성금을 기부하는 등 매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김규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회장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함께 해준 덕분에 성금을 전달할 수 있었다"면서 "추운 겨울 여러모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38개 사립작은도서관에 360만 원씩 지원

전주시가 시민들의 독서 공간이자 마을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수행해 온 작은도서관들을 지원키로 했다.

시는 6일 전주시립도서관 꽃ים에서 전주지역 사립작은도서관 관계자와 도서관 운영보조금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 시는 ▲지방보조금시스템을 통한 사업 신청 방법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사용 가능한 예산 항목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

참석자들은 또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보조금 사용 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며, 도서관 운영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와 관련 시는 운영 및 활동 실적

등을 기준으로 한 평가를 거쳐 총 38개 도서관을 사립작은도서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운영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선정된 도서관에는 연간 360만 원의 운영보조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된 운영비는 자원활동가 실비와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비, 도서관 운영물품 구입비 등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활용된다.

최현창 전주시 도서관본부장은 "사립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들이 책과 문화를 가까이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지역문화 플랫폼"이라며 "이번 지원이 도서관의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되고 지역사회 독서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김제시 육용오리농장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전북특별자치도는 6일, 김제시 공덕면 소재 육용오리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최종 고병원성으로 확인될 경우, 이는 전국적으로 21번째 양성 발생 사례가 된다.

지난해 10월 29일부터 전국 가금농장 양성 발생은 전북 5건, 경기 4건, 충북 3건, 전남·충남 2건, 강원·인천·세종·경북 1건으로 총 20건이다.

이번 검출은 지난 5일 해당 농장에서 폐사 증가로 인해 김제시에 신고한 것을 계기로 동물위생시험소의 정밀검사를 통해 6일 확인됐다.

전북자치도는 신고 접수 즉시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농장 출입

통제,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했으며, 예방적 살처분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북자치도는 도내 산란계, 오리농장 뿐 아니라 발생농장 동일 계열사(참프레)의 전국 오리 계약 농장, 사료공장, 도축장 등 관련 시설과 축산차량에 대해 6일 12시부터 7일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이동제한 명령을 발령했다.

전북자치도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 차량 및 사람 소독, 축사 출입 시 강화한 것을 계기로 동물위생시험소의 정밀검사를 통해 6일 확인됐다.

/최준호 기자

전주전대학교, 전주 대학 최초 야구부 공식 창단

전주전대학교가 2025학년도부터 전주시 대학 중 최초로 야구부를 공식 창단한다고 6일 밝혔다.

전주전대학교는 야구부 창단을 위해 지난해부터 전용 운동장과 실내 연습장 등 기반 시설 확보를 위해 다양한 기관 및 업체와 협약을 진행했다.

또한 프로야구 출신 김태원 감독과 임수민 수석코치를 비롯해 2명의 전문 지도자를 영입해 지도자 진용을 갖췄다.

운동재활과 이종민 교수는 "전문

대학 야구부 창단은 고교 졸업 선수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체계적인 훈련과 학업을 병행하며 실력 있는 선수를 육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주전대학교는 올해 고교 졸업예정 선수 22명을 수시전형을 통해 우선 확보했으며, 향후 25~30명 규모로 팀을 확대할 예정이다.

선수들에게는 장학금과 기숙사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최성민 기자

전주시, 세계로 꿈 펼칠 글로벌 우수 인재양성 나서

전주시가 전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쳐 나갈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에 나섰다.

시와 (재)전주인재육성재단은 6일 전주인재육성재단 5층 공동체 공우마당에서 '전주시 글로벌 인재양성 영어능력 강화 사업 제3기(2025년 1기) 개강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이 사업은 글로벌 마인드와 애환심을 지

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6개월 동안 회화 중심의 국내 어학연수 프로그램과 글로벌기업 및 대학을 대상으로 한 단기 해외연수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으로, 시와 재단은 공개모집을 거쳐 총 10명의 장학생을 최종 선발했다.

연수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앞으로 ▲어학 집중코스과 자체평가, 우리 지역 탐

방 등으로 구성된 4개월 과정의 국내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이후 ▲실전 영어체험을 위한 글로벌기업 및 대학 투어, 해외도시 투어 등 2주 과정의 국외연수 ▲개인 활동 보고서 작성 및 보고회 등 1개월 과정의 활동 보고 시간을 갖게 된다.

(재)전주인재육성재단 관계자는 "이번

영어 능력 강화사업은 국내 어학연수 과정을 통해 말하기 능력을 강화한 후 향상된 언어 능력을 펼칠 수 있는 단기 해외연수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라며 "3기 장학생 모두가 6개월 과정을 잘 수료해 창조적 역량을 갖춘 미래 핵심 인재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협력·소통·쇄신 '2025 건설인 신년인사회'

대한건설협회전북, 새출발 다짐...부실공사 방지에 기여한 21명 건설 유공자에 표창 및 감사패 수여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소재철)는 6일, 희망찬 을사년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2025 건설인 신년인사회'를 라한호텔 전주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유정기 전북 부교육감,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최주만 전주시의회 부의장,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장 등 건설관련 기관 및 도내 유관단체장을 비롯한 역대 건설인 원로와 회원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협회발전, 청렴문화 정착과 부실공사 방지에 기여한 21명의 건설인 유공자에게 전북도지사 표창과 전북교육감 표창, 대한건설협회장 감사패 수여식도 함께 진행했다. 소재철 회장은 신년사에서 "2024년 한해는 세계적인 경제위기는 폭풍을 건디며 고난과 역경을 인내하는 한 해였다"며, "인플레이션과 고금리에 경기 침체라는 삼각파도 속에 자칫값과 인건

비가 계속 올라 우리 건설업계의 경영 애로가 무척 심했다"고 소회했다. 이어, "패도난마(伐刀亂麻)의 의미처럼 지혜롭고 능숙하게 어려움을 헤쳐나가 새로운 기술과 경영 능력을 갖추는데 힘써야 한다"고 당부하며, "협회도 신규 물량창출, 적정공사비 확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건설산업 규제 개선 등

지역건설업계가 역경을 이겨내고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도지사는 격려사에서 "도전과 혁신의 초심을 잃지 않는 초지일관(初志一貫)의 자세로 건설업계에서도 지역도민의 소통과 협업·협력을 통해 새롭고 활기찬 전북 건설 산업을 이룩하자"고 주문했다. /최준호 기자

전주김제완주축협, 농협생명 전북1호가입

농협생명 전북, 가입고객 만나 감사행사 진행

농협생명 전북총국(총국장 지광수)은 지난 2일 전주김제완주축협 본점에서 2025년 농협생명 전북 1호 가입 감사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날 농협생명 지광수 총국장은 새해 전북농협에서 농협생명 1호 계약을 추진한 전주김제완주축협 축하 꽃다발을 전달하고 본점 직원들과 함께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 1호 가입 상품은 '진심을 담은 NH중신보험'으로 제1납기와 제2납기를 구분하여 일할 때 더 내고 후퇴 후 더 내는 방식의 스마트한 금은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3%씩 채

증 되어 최대 160%까지 지급되는 상품이다. 또한 계약자는 물론 계약자 가족에게도 농협상조 장례서비스상품 이용 시 혜택을 제공한다.

지광수 농협생명 전북총국장은 "농협생명 진심을 담은 NH중신보험은 생애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상품으로 스마트한 자금 운용이 가능하고 계약자 책임액은 향후 노후자금으로 활용 가능한 장점이 있는 만큼 고객들의 지속적인 수요가 예상된다"며 "올해에도 농협생명은 전북농협을 찾아 주시는 조합원과 고객들의 건강보장은 물론 노후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전북은행 JB플랫폼, 금융 체험하고 새해선물 받자!

1월 한 달간 개인 체험자 대상 특별 굿즈 제공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이 운영하는 금융에듀테이션 JB플랫폼에서는 개인 체험자를 대상으로 1월 한 달간 특별 굿즈 제공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JB플랫폼에서 디지털 금융교육 체험 후 디지털 수료증을 직접 발급 완료하면 특별 제작한 JB플랫폼 캐릭터 상품을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새해를 맞아 도내 청소년들의 디지털 금융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금융교육과 다양한 금융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JB플랫폼은 도내 학교 및 지역 아동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서 디지털 금융교육 체험을 위해 방문하고 있으며, 디지털 플랫폼 금융교육의 선도주



자로 나아가고 있다. 체험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년부터 중학교 3학년 청소년으로 평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로 진행되며 각 회차 당 15명씩 운영된다. 체험 신청 및 자세한 안내는 JB플랫폼 홈페이지와 전북은행 사회공헌홍보부(063-250-7465, 7405)로 문의하면 된다. /최준호 기자

전북자치도, 위케이션 플랫폼으로 지역경제 활력

대한민국 첫 도내 14개 시군 전역 위케이션 성공 운영

전북 위케이션, 2,070명 유치로 경제 활성화 견인

전북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 위케이션의 새 지평을 열며 2024년 위케이션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은 14개 시군 전역에서 위케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총 2,070명(외국인 273명 포함)을 유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성과로 평가된다.

전북 위케이션 사업은 기존 거점이었다던 4개 시군에서 14개 시군으로 확장되며, 전북 전역을 하나의 위케이션 플랫폼으로 전환했다.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의 선택 폭을 넓히고,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며 지역 경제와 생활인구 증대를 이끌었다.

특히 관광 이해관계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협의를 구성

해 지역 관광사업자들이 평일 매출을 늘리고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러한 민간 중심의 협력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 요소로 자리 잡았다.

2024년에는 부안, 순창, 남원, 장수에 위케이션 센터를 개소하고, 소그룹 중심의 기업형 위케이션과 SMALL MICE(마이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차별화에 성공했다.

2025년에는 김제, 장수, 임실 등 참가가 저조했던 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김제는 양조장과 에어비앤비 숙박시설을 활용해 젊은 이미지를 강조하고, 장수는 극장과 조리실 체험을 강화해 기업형 고객을 유치한다. 임실은 필봉 농약과 캠핑장을 연계한 교육·캠핑형 위케이션 상품을 새롭게 선보일 계획이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위케이션 사업을 2025년에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최준호 기자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설명회 개최

전북선관위, 오늘부터 입후보 설명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오는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이하 '동시이사장선거') 입후보설명회를 오늘부터 각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회별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입후보예정자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설명회는 ▲1월 7일 완산, 익산, 장수 ▲1월 8일 정읍, 완주 ▲1월

9일 덕진, 군산 ▲1월 10일 남원, 김제, 진안, 무주, 고창, 부안 ▲1월 14일 순창 순으로 개최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 ▲ 각종 제한·금지행위 및 위법행위 예방·단속에 관한 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은 오는 21일부터 2월 17일까지이다. /최준호 기자

전북자치도, 국제전자제품박람회 글로벌 무대 진출

라스베가스 CES 2025에 전북 공동관·단독관 동시 운영, 도내 9개 기업 참가

혁신상 수상 기업 (주)아이팝 등 전북의 첨단 기술력 세계에 선보여

도내 8개대학 기업 제품 전시...전북연합 학생팀 25명, 세계적 기업방문 네트워크 확대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늘부터 오는 10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 2025(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서 전북 공동관과 단독관을 동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CES는 미국소비기술협회(CTA)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ICT 전시회로,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 글로벌시장 동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리다.

올해 CES 2025는 'Dive In(몰입)'을 주제로 인간과 기술 간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기술혁신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팅, 디지털 헬스 등 첨단 기술 트렌드를 집중 조명한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첫 전북 공동관 운영(8개사)에 이어, 올해는 예산을 증

액하고 참가기업을 8개사에서 9개사로 확대했다.

전북 공동관뿐만 아니라 단독관 참가 지원을 신설하여,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작년 5월부터 기업 모집을 진행해 총 20개 기업 중 9개사를 선정, 12월까지 전시회 참가 준비를 마쳤다.

참가기업 중 ㈜아이팝은 CTA에서 뛰어난 혁신성을 인정받아 CES 혁신상을 수상하며 전북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는 데 성공했다.

참가기업에는 ▲전시 참가에 필요한 부스 임차비 및 그래픽 디자인 제작, 항공료 및 체제비, ▲홍보에 필요한 기업

의 디렉토리북 제작 및 배포, ▲전시 상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현지 통역, ▲기업의 전시물품 운송, ▲작년 대비 지원 규모가 확대된, CES 혁신상 컨설팅, 영문신청서 사전 멘토링 등을 지원한다.

전북 공동관은 Tech West 전시관 내 국가관 구역에 72㎡ 규모로 설치되며, 8개 기업이 참가한다. 전문 품목관에는 9㎡ 규모의 단독관이 마련되어 한 기업이 참여한다.

두 부스는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판로 개척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되며, 현장에서는 도내기업들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CES 기간 동안 도내 대학(전북대, 전

주대, 원광대, 우석대)의 JB LINC3.0 TECH HUB관이 Eureka Park에 설치되어 8개 대학 기업이 제품을 전시하고 기술 협력을 모색한다.

또한, 전북 연합 학생팀 25명은 실리콘밸리의 구글, 애플 등 세계적인 기업을 방문하며 혁신 기술을 체험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CES 참가 이후 성과 분석과 리뷰 세미나를 통해 도내 기업들의 수출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글로벌 기술 트렌드에 맞춘 전북의 미래 신산업 전략을 도출할 예정이다.

신원식 전북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CES 참가가 전북의 첨단 기술력을 알리고, 글로벌 신기술 트렌드에 부합하는 미래 신산업 전략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지원과 교류를 통해 전북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농업경영체, 양파·마늘 변경사항 신고하세요

전북농관원, 양파·마늘 등록정보 정기 변경 신고제 운영

국립농산물관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김민욱, 농관원전북지원)은 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양파·마늘을 경작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등록정보에 대한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르면 재배품목과 면적, 재배농지 등 등록정보의 중요사항이 변경되면 농업경영체가 본인의 정보를 변경등록 하도록 되어 있

다. 하지만, 바쁜 영농활동, 변경등록의 필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 등의 이유로 변경등록을 제때 하지 않은 사례도 많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농관원전북지원은 대표적인 동계작물인 양파·마늘을 시작으로 중요 농작물 파종·식재 시기에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기간에는 집중 홍보를 통해 농업경영체가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농관원전북지원은 양파·마늘의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2월1일부터 2월21일까지 재배품목 일치여부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향후 농관원전북지원은 양파·마늘 정기 변경신고 운영 경험을 토대로 벼·사과·배 (하계작물: 4월~6월), 무·배추 (추계작물: 9월) 등 수급관리에 중요한

품목에 대한 정기 변경 신고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농정의 기초 데이터 역할을 하는데 더 충실할 수 있도록 고도화 시킬 것이다.

농관원전북지원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더 높으려면 농업경영체의 자발적인 변경등록이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본인의 농업경영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제때 변경사항을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준호 기자

전북대, '안전한 환경 갖췄다'는 국제적 인증 획득

거점국립대 최초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 인증...안전보건 전담 부서 신설, 매뉴얼과 절차서 마련, 위험성평가 시행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구성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갖췄다는 국제 인증을 받았다. 전북대

는 최근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2018) 인증을 취득했다. 이는 거

점국립대 가운데 최초 사례다. 이 심사기관인 KIWA는 6일 오후 1시 30분 이숙찬 원장 등이 전북대를 찾아 양오봉 총장에게 인증서 전달식을 가졌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2018)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해 구성원들에게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는 기관에 부여되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국제표준이다.

전북대는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토대로 매뉴얼과 절차서 19종, 지침서 32종을 수립했

다. 안전보건 전담 부서 신설 및 위험성평가를 통한 유해·위험 요인 개선과 내부심사를 통하여 구성원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는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했다.

전북대 양오봉 총장은 "우리 대학은 안전경영, 안전과 보건을 핵심가치로 정하고, 구성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이번 인증을 통해 교내 안전보건 체계를 국제 기준에 부합하게 고도화하고, 지속적인 안전보건경영 활동을 통하여 안전문화 확산을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의대 정시모집 경쟁률 전북대↓·원광대↑

의대 정시 지원 6년만에 최다 기록...모집 인원 대폭 상승해 평균 경쟁률은 하락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2025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추진한 '수능 1등급 올리기 프로젝트'가 학생들의 성적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26일부터 11월 13일까지 80일간 운영된 '수능 1등급 올리기 프로젝트'에는 도내 43개 일반개교, 76개반, 1613명이 참여했다.

이 프로젝트는 대입 수능 대비 맞춤형 학습 지원과 실전 모의고사 지원을 통해 고등학생들의 학력을 효과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했다.

전북교육청은 프로젝트 참여 학생중 1,485명의 성적을 분석한 결과 88% 이상이 모의고사 결과보다 한 등급 향상 또는 목표 등급에 근접했다고 26일 밝혔다.

영어와 사회탐구 과목에서 각각 75.0%와 59.0%로 등급 향상 효과가 두드러졌다. 이어 과학탐구 51.4%, 국어 46.0%, 수학 43.2%가 향상됐다.

목표 등급 근접 및 유지를 포함하면 과목별로 국어 83.7%, 수학 85.8%, 영어 97.3%, 사회탐구 82.7%, 과학탐구 81.5%가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다.

학생이 직접 정한 수능 영역의 등급 향상 목표 계획에 따라 수능 성적 향상을 위한 개별 학습 계획을 점검하고, 일대일 학습 멘토링 등의 학생별 맞춤형 수능 학습을 지원한 것이 주효했다.

특히 수능 전까지 실전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EBS 파이널 모의고사 등 실전 모의고사 시험지를 제공해 학생들은 실제 시험 상황을 경험하면서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 시간 관리 훈련을 진행했다.

학생별로 매칭한 멘토링 교사를 통한 학습관리도 중요한 과정이었다. 멘토링

교사는 자기주도학습 시간 동안 학생과 함께하며 수능 성적 향상에 집중하도록 돕고 꾸준한 학습관리를 통해 수능시험 당일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험생의 맞춤형 학습을 지원했다.

유효선 중등교육과장은 "2025학년도에는 참여 학교와 학생 규모를 확대하고, 추가적인 선택 과제를 도입해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높일 예정"이라며 "지역 내 학생들의 학력 신장과 대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학생 맞춤형 학력 향상을 위해 총중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서거석교육감 "전북교육, 한단계 더 끌어올려야" 새해 첫 전략회의서 주문... 전략과 목표 지점 새롭게 설정해야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지난 6일 새해 첫 전략회의를 열고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가 시작됐다. 푸른 뱀은 지혜와 성장, 그리고 발전을 상징한다"며 "여러분의 지혜와 유연한 혁신 에너지로 우리 전북교육을 한 단계 더 끌어 올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2025년 전북교육의 주요 정책과 10대 핵심과제가 선정됐다"며 "새롭게 바뀌는 주요 사업을 교육 가족과 도민들에게 친절하게 안내해서 전북교육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제3자의 시각에서 기존의 업무 실적과 업무 추진 방식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성과 도출을 막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등을 제대로 파악해서 전략과 목표 지점을 새롭게 설정해달라"고 주문했다.

서 교육감은 7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10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2025년 주요 교육정책을 밝힐 예정이다.

/최성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025 JB-지구촌 지원단 운영

선정교 145개교 찾아가... 학부모·교직원·학생 대상 세계시민교육 및 문화다양성 교육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구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세계시민의식 함양하고자 '2025 JB-지구촌 지원단'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JB-지구촌 지원단은 2025 찾아가는 세계시민교육 및 문화다양성교육 선정교 145개교를 찾아가 학부모 및 교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세계시민교육 및 문화다양성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지원단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14일 오후 2시까지 신청서, 교육활동 지도안, 수업 실연 영상 파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의 제출서류를 작성해 교원은 민주시민교육과로 공문 제출하고, 외부 지원자는 이메일(hrlee1209@

jb.edu.kr) 제출하면 된다.

지원 자격은 ▲세계시민교육 교사연구회 및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활동이력 있는 자 ▲다문화교육 중점학교 운영 유경험자 ▲교육청 주관 다문화교육 관련 지원단, 파견 프로그램, 연구회, 사제동행 등에 참여한 자 ▲교수, 교원, 다문화교육 관련 유관기관 근무 이력 소지

자 ▲문화다양성교육 강사로 활동한 이력 있는 자 ▲해당 분야 관련 학위 소지자,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등이다.

전북교육청은 심사를 거쳐 오는 21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고, 2월 7일 JB-지구촌 지원단 협의회를 개최해 운영 방침 및 교육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교육연수원, 늘봄지원실장 임용예정자 전문성 강화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은 전북형 늘봄학교의 안정적 정착과 지원 강화를 위해 6일부터 10일까지 '2025 늘봄지원실장 임용예정자 직무연수'를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2025학년도 임용 예정인

늘봄지원실장 1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교육연수원은 '전북형 늘봄학교'의 안정적 정착과 성공적 운영을 위한 핵심 인력 육성을 목적으로, 정책 이해부터 운영 역량 강화까지 교육과 돌봄을 효

율적으로 통합하는 늘봄지원실장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를 위해 기획했다.

특히 늘봄지원실장의 업무 전문성을 통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해 내실 있는 책임교육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완성 원장은 "이번 연수는 전북형 늘봄학교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기회"라며 "늘봄지원실장들이 실질적인 지식과 경험을 쌓아, 현장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주대, 빅데이터 대상 수상 김진우 학생 등 'CES 글로벌 교육 연수' 실시



전주대학교가 전북권 4개 LINC 3.0 사업단 연합으로 'CES 2025 글로벌 교육 연수'를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실시한다.

이번 글로벌 교육연수(이하 연수)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규모의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 2025 참관,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 내 구글 캠퍼스, 애플 파크, 인텔 뮤지엄, 스탠퍼드대학교와 버클리대학교를 방

문해 미래 혁신 첨단 기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하여 마련됐다.

이번 연수는 전주대, 전북대, 원광대, 우석대 등 4개 대학 연합으로 CDS 빅데이터 전공경진대회에서 대상(한국연구재단 이사장상)을 수상한 전주대 전기전자공학과 김진우 학생을 비롯한 각 대학 LINC 3.0 사업 참여 우수 학생 총 25명을 선발해 인솔 직원 5명과 함께 실

시한다.

특히 전 세계 160개국 4,312개 기업이 참가하는 CES 2025 참관 및 실리콘밸리 탐방을 통해 세계적인 첨단 정보기술의 변화와 흐름을 직접 체험 및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세계적인 첨단 기술 산업의 중심지인 실리콘밸리와 스탠퍼드대학교 등을 탐방 및 귀국 후에는 글로벌 연수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성민 기자

우석대,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종합평가 'A등급' 획득

우석대(총장 박노준)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대학혁신지원사업 Ⅲ유형) 종합평가 결과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은 대학-지자체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비수도권 사립대학의 특성화를 통해 대학과 지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사립대학 66개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평가에서 우석대학교는 휴먼테크 특성화 분야(한방테크 및 라이프케어)에 대한 지역 정주형 인력 양성 프로

그램과 지역 산업계 기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실적과 성과 등이 높게 평가받았다.

또한 지자체-대학 간 거버넌스 구축과 산학협력 네트워크,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한 학사구조 개편 등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아울러 RISE에 연계할 수 있는 우수성과 사례를 체계적으로 선정하고, 지자체 RISE사업 단위과제와도 적절히 연계된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최성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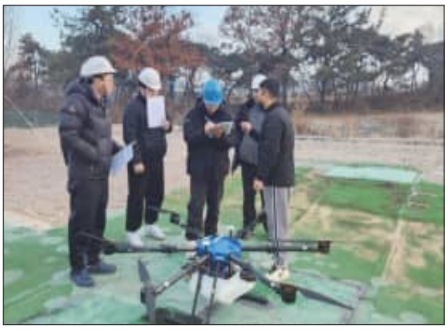
겨울철 산불 예방법

- 1 **취사, 야영은 지정된 장소에서!**
- 2 **산에서는 절대 흡연하지 않기!**
- 3 **라이터 등 화기물 소지하지 않기!**
- 4 **산에서 쓰레기 소각하지 않기!**
- 5 **논, 밭두렁에 불 내지 않기!**
- 6 **난방기기 사용 시 안전점검 받기!**

산불 발생 시 행동요령

- 1 **빠른 신고**
신속하고 빠르게 119, 112, 산림청에 신고!
- 2 **초기 진화**
나뭇가지로 두드리거나 흙을 덮어 진화 시도!
- 3 **신속 대피**
산불 반대 방향으로 벗어나 낮은 장소로 대피!
- 4 **침착 대응**
낮은 자세로 엎드려 침착하게 도움 기다리기!

익산시, 첨단 농업 이כל 농업용 드론 전문가 양성



익산시가 4차 산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드론의 농업분야 활용을 위해 전문가를 양성한다.

시는 오는 10일까지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자격 취득 교육생 30명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교육은 익산시농업기술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은 드론 교육기관에서 진행되며, 교육비의 50%(1인당 최대 110만 원)가 지원된다.

대상은 익산에 거주하며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를 소지하거나 신체검사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만 18세 이상 농업인이다. 신청은 농촌지원과를 방문하면 되고, 더욱 자세한 내용은 전화(063-859-495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해경, 새롭게 출범하는 해양재난구조대

군산 해양경찰서(서장 박상욱)는 민간 구조세력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제정된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해양재난구조대법)」이 2025년 1월 3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전국 11,312명 중 군산해양경찰서 소속 해양재난구조대원(기존 민간해양구조대원)은 416명으로 최근 5년간(20년도~24년도) 약 1.5배 이상 증가하였고, 해양 조난사고에서 이들 민간 구조세력에 의한 구조율이 약 20%에 달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해양사고 대응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전국의 1만 천여명의 민간 구조세력은 이제 '해양재난구조대'로 새롭게 출범하게 된다.

기존 '민간해양구조대원'은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법 시행으로 '해양재난구조대'는 명확한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민·관 협력체계가 한층 더 공고해지는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고 해양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해양경찰은 다양한 분야의 우수인력을 지속 모집하여 인력풀을 확충하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성 강화, 단체 피복 지급 및 포상 기회 확대와 같은 사기진작 방안 추진 등 민간의 구조 참여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지승길 기자

익산시, '장기요양 재택의료 센터 시범사업' 협약 체결

익산시가 거동 불편으로 의료기관 방문에 어려움을 겪는 장기요양수급자를 위해 의료·복지 통합서비스 제공에 나섰다.

시는 지난 6일 서동한의원(원장 임태형), 소망한의원(원장 윤영록), 익산시제가장기요양기관협회(회장 장선욱)와 '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가 공모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구성된 재택의료팀이 방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협약에 따라 서동한의원과 소망한의원 재택의료팀은 이달부터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수급자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의료와 지역사회 돌봄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도 가정 내 돌봄이 가능해짐에 따라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 노인일자리 사업 개시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 474억 5천만 원 투입... 1만 1,286명 참여



노인일자리 사업의 아동 안심등고 수호대의 모습이다.

익산시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사업비 474억 5,000만 원을 투입해 2025년 노인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전년 대비 100명이 증가한 1만 1,286명이 사업에 참여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사업유형별 인원은 ▲노인공익활동사업(공익형) 9,279명 ▲노년역량활용사업(사회서비스형) 1,533명 ▲공동체사업단(시장형) 264명 ▲취업알선형 210명으로 활동기간은 유형별로 10개월에서 12개월이다.

특히 시는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해 어르신들의 겨울철 소득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지난해보다 20여 일 앞당겨 사업을 시작했다.

노년일자리 사업은 시니어클럽 2개소를 비롯해 대한노인회,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 등 14개 수행기관에서 진행된다.

주요 사업으로 ▲아동 안심등고 수호대 ▲초등학교·어린이집 급식도우미 ▲독거노인·장애인돌봄 서포터즈 ▲도시락 배달사업 등을 확장해 취약계층 돌봄 역할을 강화했다.

또한 지역 고령자의 건강한 식사를 지원하고자 지난해에 이어 경로당 100개소에서 하루 한 끼 식사 관리 사업을 운영한다. 경로당 네일아트, 발간강 관리, 테크리에이션 활동 등을 진행해 고

령자의 문화 체험 참여를 확대한다.

아울러 탄소저감 정책에 발맞춰 폐플라스틱 재활용, 미세먼지 정화, 폐건전지 수거 등을 추진해 지역사회 환경개선에도 적극 동참한다.

시는 시니어특화장점업을 통해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더욱 전문적인 일자리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

전문 강사를 섭외해 ▲정리수납전문가 2급 ▲바리스타&브런치 셰프교육 ▲네일아트 전문교육 ▲동화구연가(그림책활동) ▲조경원예전문가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익산 노인인구가 12월 기준 6만 4,8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4.2%에 육박해 갈수록 노인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노년일자리는 소득보전과 우울감 해소 등 사회적인 효과가 큰 만큼 사업 내실화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해 전국 평가우수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6개소 배출과 장려금 총 4,000만 원 확보 등의 성과를 거둬 노인일자리 사업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실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협약 체결... 방문진료·방문간호 등 서비스 제공

군산시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요양 시설 등에 입소하지 않고 집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군산시는 지난 6일 경희365한의원, 대한환경보건기술센터와 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기요양 재가급여 인정자를 대상으로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재택의료팀으로 방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군산시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지자체 공모에 선정됐다.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재가급여 인정자는 경희365한의원, 대한환경보건기술센터의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면 협약에 따라 군산시 재택의료센터 2개소는 이달부터 거동이 불편

한 노인 가정을 대상으로 방문진료(월 1회)와 방문간호(월 2회), 수시상담 및 지역사회 돌봄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현석 복지환경국장은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어르신들이 지역 사회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질 높은 통합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승길 기자

정읍시, 지적민원처리 전국 최우수상 수상

'시민에게 찾아가는 지목현실화 서비스' 협업·적극행정 분야 수상... 시민 중심 행정 입증



정읍시가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제5회 지적민원처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시민에게 찾아가는 지목현실화 서비스'로 협업 및 적극행정 분야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시민 중심 행정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입증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적극행정, 협업, 고충처리, 특수시책 등 분야별 심사가 진행됐다. 최종적으로 6편이 선정된

가운데 시는 협업과 적극행정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시는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각종 인허가 후 지목변경이 미신청된 토지 488건을 발굴해 개별 안내를 통해 지목변경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약 1억 7,500만 원의 취득세를 확보하며 지방세수 증대에도 기여했다.

또한,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산지법 및 농지법 시행 이전에 형성변경된 토지의 지목현실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신청과 상담 안내를 시작해 현재까지 총 36건의 토지에 대해 지목현실화를 완료한 상태다.

/정읍=김정민 기자

익산시,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 6억 돌파

2024년 기부금 6억 6,400만 원... 2023년 대비 12.6% 상승·1,962건 증가

지난해 모인 익산시 고향사랑기부금이 2023년 대비 13%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인 기부금은 6억 6,400만 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도 5억 9,000만 원보다 12.6% 늘어난 수치다. 건수로 보면 6,616건으로 2023년 4,654건 대비 1,962건 증가했다.

전체 기부 중에는 전액 세액공제 적용 한도인 '10만 원' 기부가 93.6%가

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기간별로 보면 지난해 11~12월 모인 기부액이 전체의 70.6%인 4억 6,900만 원으로 연말 두 달간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직장인 기부가 집중되는 특성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탐마루 쌀 ▲고구마 소주 ▲날씬이 고구마 ▲배 ▲한돈구이세트 ▲김치 등 익산에서 나는 특산품을 중심으로 하는 기부 담레품을 앞세워

보했다.

그 결과 5,300여 건의 담레품이 주문되는 등 지역농가를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올해부터 1인당 기부 한도가 기존 5,000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되는 만큼 담레품을 추가 발굴하고, 시 기별 맞춤형 홍보 전략을 통해 기부 문화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최우수상 '시민에게 찾아가는 지목현실화사업' 등 5건 선발

정읍시가 지난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5건을 선발했다.

시는 공식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고 확산하기 위해 매년 반기별로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있다. 시민의 입장에서 도전적이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며 성과를 달성한 직원들이 선발 대상이다.

이번에는 추천을 통해 총 20건(개인 11건, 팀 9건)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실무 심사(40%), 직원 투표(30%), 시민 투표(30%)로 이루어진 사전심사를 거쳐 12건이 선정됐다. 이후 인사위원회 심사에서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2건이 최종 선정됐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사례는 '시민에게 찾아가는 지목현실화사업'으로 농지법과 산림법 시행 이전 행정 변경된 토지에 대한 지목 현실화를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 보호를 실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은 ▲미하급 법원 공작금 회수 추진 ▲어린이집 집단 급식소 영양사 배치 기준 개선 2건이 선정됐다.

장려상에는 ▲국유재산 감면율 재산정을 통한 예산 절감 ▲사전 다양한 사례조사로 복합형 바닥수(미로분수) 조성 등 2건이 선정됐다.

시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공무원들에게 성과상여금 S등급 또는 근무성평정 가점 등의 인센티브와 함께 시상금을 부여할 예정이다.

/정읍=김정민 기자

군산시, 주민과 함께하는 읍면동 신년대화 시작

다양한 계층의 주민 제안 반영

군산시는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오는 수송동을 시작으로 13일간 '주민과 함께하는 읍면동 신년대화'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27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시행하는 이번 신년 대화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나아가 주요 시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제 사된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은 지역 및 연령, 분야별로 분류하여 군산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책발굴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불편 및 민원에 대해서는 사업 부서의 사전 현장점검 후 답변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며, 건의 사항은 업무 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장이 배석하여 설명 후 처리결과를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2025년 신년대화를 시작으로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 또한 연중 실시하여 폭넓은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군산시의 더욱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군산=지승길 기자

익산소방서, 전기차 화재진압용 장치 도입

익산소방서(서장 라명순)는 최근 빈도가 증가하는 전기차 화재에 대비하고자 관통형 방사 장치(EV Drill Lance)를 도입했다고 6일 밝혔다.

관통형 방사 장치(EV Drill Lance)는 현대자동차와 쉼크르테크가 공동 개발한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로 수압을 이용해 전기차 하부의 배터리를 천공하여 내부에 직접 물을 분사하는 직접 주수 방식의 장비다.

이 장비는 배터리 셀에 직접 물을 분사할 수 있어 기존 이동식 소화수조나 방사 장치보다 소화시간이 단축되고 열폭주를 줄이는데 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서에서는 팔봉119안전센터에 배부해 각 팀별로 장비 조작법과 실무 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 중 지하층 전기차 화재를 가정에 전기차 진압



장비를 활용한 실무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라명순 소방서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전기차 화재는 진압이 어렵고 완전히 진압하는데 소모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며, "전기차 화재 특성에 맞는 장비 도입과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민생 위기 돌파

익산시는 사상 초유의 국비 삭감에도 불구하고 올해 다이로움 발행 목표를 도내 최대 규모인 4,000억 원으로 설정했다고 6일 밝혔다.

구매 한도는 연간 720만 원이다. 시는 충전 시 주어지는 10% 추가 혜택을 기존과 동일하게 연중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2020년 처음 발행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가입자 수는 26만여 명이다. 이는 익산시 인구와 비슷한 숫자다. 지난해만도 2만 5,600여 명이 신규로 가입하는 등 꾸준한 사랑을 받으며 시민들의 주요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누적 발행량은 2조 원을 돌파했다.

발행 규모가 클 뿐 아니라 실제 사용 비율인 결제율 역시 98.5%에 달한다. 지난해 한 해만 4,585억 원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졌다.

특히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1조 원의 경제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시는 ▲대형마트 소비 자금의 소상공인가맹점 전환 ▲타지역 소비 유출 방지 ▲충전 시 10% 혜택을 통한 추가 소비 발생 등을 세부적 경제효과 유발 요인으로 분석했다.

시는 다이로움 도입 6년 차에 접어드는 올해 플랫폼(앱)을 전면 개편해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2025년 고창군민 신년 하례회 열어

군민·기관사회단체장 등 함께 서해안철도 국가철도망 반영 촉구 결의문 낭독도

고창군이 새해를 맞아 지역 기관사회 단체와 함께하는 신년 하례회를 열었다.

6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고창 동리국악당에서 고창군민, 관내 기관사회단체장 및 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고창군 신년 하례회'가 열렸다.

행사는 ▲2025년 신년사 ▲서해안 철도 국가철도망 반영 촉구 결의문 낭독 및 퍼포먼스 ▲신년 하례회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군민들과 함께 서해안철도(목포-고창-군산)의 국가철도망 반영을 촉구하는 결의문 낭독이 열렸다.

군민들은 "서해안 철도는 물류비용을 줄여 국가 첨단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포화상태에 이른 서해안고속도로 통행량을 분산시켜 탄소배출 저감과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끌어 올릴 것이



6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고창 동리국악당에서 고창군민, 관내 기관사회단체장 및 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고창군 신년하례회'가 열렸다.

다"고 강조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이 가진 문화·역사·예술·관광 등 매력 자산을 활용해 산업화하고, 강한 경제를

바탕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이 모이는 도시로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희옥 김제부시장, 하계올림픽 유치 현장점검

대한체육회 평가단 현장실사 대비 새만금 33센터 일대 방문해 전북 유치 불 조성 상황 점검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3일 김희옥 부시장이 대한체육회 평가단 현장실사를 대비해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불 조성 현장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대한체육회 평가단 현장실사를 대비한 사전점검으로 평가단 방문예정인 새만금 33센터 일대를 방문해 김제시의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불 조성 상황을 점검했다.

시는 체육단체 및 사회단체의 협조를 통해 새만금 일원, 시내권 일원 등에

김제시민의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염원을 담은 플래카드 80여 개소, 게시물은 물론 전광판 15여 개소를 활용해 유치 기원 홍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31일 시장, 간부공무원 등 청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지하대강당에서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기원 퍼포먼스를 진행했으며, 설 명절 전까지 시장, 의장, 시의원, 사회단체장 등을 대상으로 유치 기원 홍보 릴레이 캠페인을 2036 36

회 하계올림픽 유치를 염원하는 의미로 올림픽 유치로 도약할 김제를 꿈꾸는 데에 뜻을 모은 36명이 참여할 계획이다.

김희옥 부시장은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는 더 특별한 내일, 기회도시 김제, 전북을 꿈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1차 관문인 대한체육회 유치에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당부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2024년 지정기부 사업 5개월간 8012만원 달성

지난해 약 80% 성과 거둬...2025년도 지정기부 목표액 1억원 설정 모금 시작

부안군은 지난 2024년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사업으로 추진한 '야생벌 봉봉이를 지켜주세요!' 사업이 2024년 8월부터 12월까지의 약 5개월의 모금기간 동안 목표액 1억 원 중 8012만 원을 모금하며 약 80% 달성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야생벌 봉봉이를 지켜주세요!' 사업은 부안군 제1호이자 전북특별자치도 지자체 중 처음 시작한 지정기부 사업으로 생태계 유지의 핵심 역할을 하는 야생벌의 서식지를 보존하고 생물 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추진된 지정기부 프로젝트다.

기부금은 비호텔 설치, 밀원 식물 확대, 환경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실질적인 환경 보호 활동에 사용될 계획이다.

군은 2025년에도 '야생벌 봉봉이를 지켜주세요!' 사업을 이어가며 지정기부 목표액을 1억원으로 설정하고 본격적인 모금 활동을 시작했다.

새롭게 설정된 목표는 야생벌 보호뿐만 아니라 지역 내 환경 교육 확대와 생태계 보호 사업의 가능성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군은 이번 모금 목표 달성을 위해 온라인 캠페인, 지역 축제 연계 홍보, 타지역 향우회와의 협력을 통해 더 많은 기부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정기부에 참여해 주신 기부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짧은 모금 기간이었지만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덕분에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며 "모금액은 미래세대에 깨끗한 지구를 선물하는 데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농작물 재해보험료 90% 지원...농가 큰 '호응'

민선 8기 심덕섭 고창군수의 핵심 농정 공약중 하나인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고창군에 따르면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이 올해도 중점 추진된다.

앞서 심덕섭 군수는 지난 2022년 7월 취임 일성으로 "재해보험 군비 부담은 늘리고, 농가 부담은 덜어내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2022년 기준 20%였던 농가부담금은 2023년과 2024년 각 5%씩 추가 지원됐다.

이에따라 1월 현재 농가부담금 10%로 낮아졌다.

덕분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2022년 8134곳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1월에는 9278곳으로 약 1000개 농가가



증가했다.

2001년 사과, 배를 대상으로 시작된 농작물 재해보험은 현재 고추, 노지수박, 복분자, 단호박 등 지역별로 약 70개 품목이 가입가능하고, 가입기간은 품목별로 별도 운영되며 가까운 지역농협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농업 재해에 맞서 싸우며 고품질 농산물을 목표로 하는 고창군 농업인의 노고에 감사로 전한다"며 "앞으로도 농가 경영안정 및 안정적인 농업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건강증진사업 '우수' 표창 휩쓸어

올해부터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출산친화적 환경조성 나서

부안군 보건소는 다양한 건강증진사업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올려 기관상과 개인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실제 군은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모자보건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 표창을 받은 데 이어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건강증진분야(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또 지역사회건강조사, 통합건강증진사업 분야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전북특별자치도 개인 표창을 받는 쾌거를 올렸다.

특히 모자보건 유공기관 장관 표창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과 자녀의 출산·양육 지원에 공

적을 세운 기관에 주는 것으로 군은 지난 2024년 부안군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출생축하금 지원기준 완화(학대 지원), 출산 산후 조리비 지원사업 시행 등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노력해 저출산 극복에 적극 대응한 점을 인정받았다.

박찬병 군 보건소장은 "2025년부터 한방 난임부부 지원, 영구적 불임 예방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 다문화 임신부 출산준비교육 운영 등 신규사업을 시행해 출산친화적 환경조성에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사업을 지속 발굴해 지역사회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선도 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 사업등 농촌지원분야 시범사업 신청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025년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고 농가 소득증대와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6일 농촌지원분야 농촌지도사업 9개 사업에 대해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시는 다양한 농촌진흥 시범사업을 통해 농촌의 심각한 고령화에 따른 농업인구 감소와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농업인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2025년 농촌지도사업은 선도 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사업 등 9개 사업으로, 젊고 강한 차세대 농업인 육성, 지역 농업에 기반한 6차산업 확대, 농가 소득증대 및 가치향상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사업 신청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2월 10일까지이며,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단체) 및 법인은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사업 선정은 현지심사, 발표심사, 타당성 조사 및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3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된다.

2025년 농촌지도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청 및 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김제=온봉기 기자

김제시의회, 재난 지원 범위 확대 등 3건 안건 다뤄

2025년도 첫 의원간담회 개최

김제시의회(의장 서백현)가 지난 6일 오전 10시 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첫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2025년 의사운영 기본계획안을 비롯해 제285회 임시회 운영계획안, 김제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주요 안건 중 오승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제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은 기존 '재난 등'의 범위에 '시민의 일상생활에 어려움과 피해를 주는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을 포함한다.

또한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조례는 설 명절 전 지급 예정인 '김제시 일상회복지원금'의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백현 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에 2025년 특별회비 전달

고창군이 6일 군청 2층 군수실에서 2025년 을사년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돕는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에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이선홍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 회장은 이날 심덕섭 군수에게 특별회비증을 전달한 후 "대한적십자사는 가장 낮은 곳에서 고통받는 모든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더욱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앞으로도 적십자 나눔 활동에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지역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적십자사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적십자 회비 모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이날 전달된 적십자 특별회비는 재난 발생 시 구호활동, 취약계층 및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 지원 등 각종 인도주의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군, 겨울방학 대학생 일자리 사업 최종 선발... '성상 발판 되길'

고창군이 대학생 학비마련과 취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5년 겨울방학 대학생 일자리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대학생일자리사업은 군비 1억1000만 원을 투입해, 1년에 2번 방학기간 동안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사회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특히, 고창군은 지난 2023년부터 취약계층의 비율을 30%로 정해 더욱 다양한 학생들이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 대학생들은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복지시설과 아동·청소년 시설에서 한달여 간 일하게 된다.

이번 겨울방학에는 총 39명이 접수했으며 1차 서류 선발, 2차 해당 사회복지시설 면접으로 총 28명을 공정한 기준으로 선발했다. 최종 선발자들은 사회복지시설, 아동 및 청소년 이용시설 등 15개소에서 31일까지 총 4주간 근무할 예정이다. 황민안 고창군 신활력경제정책관은 "이번 근무기간 동안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이를 발판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제699회 지평선아카데미 '자존감 수업' 진행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오는 9일 제699회 지평선아카데미에 윤홍균 정신과 전문의를 초청해 '자존감 수업'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윤홍균원장은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교 의과대학원 과 박사 과정을 마쳤으며, 현재 '윤홍균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또한 tvN '어쩌다 어른', CBS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EBS '부부가 달라졌어요', 교통방송 '귀로 듣는 처방전' 등 다수의 프로그램에 출연했고 저서로는 '자존감 수업·마음 지구력' 등이 있다.

이번 지평선아카데미에서는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자존감의 의미와 중요성 및 자존감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알려주며 일과 사람 때문에 무너진 자존감을 끌어올리는 방법과 행복한 인간으로 삶을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한 실천 방법을 제시해 줄 예정이다.

한편, 지평선아카데미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별도 신청 없이 선착순으로 참석 가능하며, 현장 참여가 어려운 시민을 위해 강연 영상이 김제시 홈페이지와 사이버학습센터에 업로드된다.

/김제=온봉기 기자

순창, 도내 유일 2년 연속 인구 증가

청년 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대학생 생활지원금 등 보편적 복지정책 성과 농촌 유학 지원사업, 면 단위 지역 학교 폐교 위기 극복·103명 전입

순창군의 보편적 복지정책이 인구 증가로 이어지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전북 도내 대부분의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한 가운데, 순창군은 2년 연속 인구 증가를 기록해 주목받고 있다. 이는 도내 인구감소지역 10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며, 평균연령도 도내 군 단위 감소지역에서 가장 젊은 54.6세를 기록했다.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2월 말 기준, 순창군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26,822명으로, 전년 말 대비 58명이 증가했다. 이는 자연감소 315명(출생 98명, 사망 413명)에도 불구하고, 전입인구(2,493명)가 전출인구(2,138명)를 355명 앞서면서 이뤄낸 결과다.

군은 청년 근로자 지원과 복지정책의 성공을 인구 유입의 주된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청년 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은 지역 청년 대다수가 참여



도내 대부분 지역의 인구가 감소한 가운데 순창군의 보편적 복지정책이 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 주목받고 있다.

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이 사업은 2년 동안 매월 15만 원을 적립하면 군에서 월 30만원씩 적립해 주고 은행 이자 혜택까지 제공하며, 청년층의 경제적 안정과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아울러, 학기당 200만 원씩 연간 최대 400만 원, 4년 동안 총 1,600만 원을 지

원하는 '대학생 생활지원금' 사업은 지난해 1,317명에게 혜택을 제공하며,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했다.

또한, 농촌 유학 지원사업으로 면 단위 지역 학교의 폐교 위기를 극복하며 51명의 유학생을 유치해, 가족을 포함한 103명이 순창군으로 전입하는 성과도 이끌어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우체국몰 브랜드관, 설 프로모션 진행 이달 6일~30일까지...지역 농특산물 명절맞이 매출 증대 도모

전북 특별자치도 남원시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우체국 소핑몰(mall.post.go.kr) 내 '남원시 브랜드관'에서 6일부터 1월 말까지 설 선물대선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우체국 소핑몰의 전국적인 유통망을 활용해 남원시의 우수 농·특산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행사로, 우체국 소핑몰과 협력해 '남원시 브랜드관'을 새롭게 개설했다.

특히, 설 선물대선 기간 동안 남원시 브랜드관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는 10%의 할인쿠폰을 발행해

우체국 소핑몰에 입점한 남원 지역업체에서 판매하는 우수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으며, 할인쿠폰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발행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설맞이 우체국 소핑몰 프로모션을 통해 남원만의 특색있는 브랜드관을 선보이고, 약 70개 입점업체의 제품을 홍보하면서 지역 농특산물 판로를 확대하고 매출 증대를 도모할 것"이라며, "시민들과 소비자들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보건소, 비만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이달 13일부터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가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오늘도 건강해짐(GYM)' 비만예방관리 프로그램을 1월 1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늘도 건강해짐(GYM)'은 유산소 및 근력 운동을 중심으로 비만율을 낮추고 건강한 신체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본 프로그램은 총 1기~3기로 운영되며 1기는 만19~49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모집인원 총원 시까지 모집한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보건소 주민건강증진센터에 방문해 체성분 측정 후 체지방률 조정(남성 25% 이상, 여성 33% 이상)에 해당하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3개월 동안 주 3회 진행되며 운동 및 영양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오늘도 건강해짐 프로그램은 비만 예방과 관리에 중요한 첫걸음을 떼는 기회이며 참여자들이 건강을 되찾고 건강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거나 자세한 문의 사항은 남원시보건소 주민건강증진센터 방문 또는 전화(063-620-7963)하면 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 복지 정책 대폭 확대...저소득층 지원 강화

기준중위소득 인상, 생계급여 4인 가족 기준 11만 7천 원 증가...선정 기준도 완화

남원시는 정부의 약자에 대해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정책 확대에 발맞춰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위기 가정에 대해 든든해진 맞춤형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지원하게 된다.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은 2024년 대비 4인 가구 기준 6.42%, 1인 가구는 7.34% 인상했으며, 이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5년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 최저생활보장 수준 심의·의결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다.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국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4인 가구 지

원 기준액이 현재 183만 3,000원에서 2025년 195만 1,000원으로 월 최대 11만 7,000원이 증가한다.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변경에 따라 자동차의 일반재산 적용 기준이 현행 배기량 1,600cc 미만, 차량 10년 이상 또는 차량 가격 200만 원 미만 승용차에서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 10년 이상 또는 차량 가격 500만 원 미만 승용차로 완화된다.

아울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기존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이하에서 연 소득 1억 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이하로 완화되

며 노인 근로소득 공제는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러한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선정 기준 완화로, 2025년부터는 위기 상황에 놓인 저소득층들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진입 벽이 낮아지게 됐다.

남원시는 변경된 선정 기준에 대해 남원시 홈페이지, 전광판 등재, 현수막 제작, 이·통장 회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상담,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가정방문 상담 등 다각적으로 홍보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유희태 완주군수, 읍면 연초 방문...지역 현안 청취

8일 화산·비봉 시작, 17일 경천면 일일...소통 행정 강화

유희태 완주군수가 현장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 행정을 위해 읍·면 연초 방문을 시작한다.

오는 8일 화산면과 비봉면을 시작으로 17일까지 오전과 오후로 나눠 1~2개 읍면을 방문하고 지역 현안을 청취한다.

현안사업장 방문, 2025년 군정계획 설명, 퇴직이장 감사패 전달과 읍면정 보고 등으로 진행되며, 주민과의 대화 시간을 대폭 늘려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 군수는 "유연한 사고로 불안정한

정국을 헤쳐 나가고 민생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완주발전을 위한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연초방문을 통해 현장에서 더 낮은 자세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군의 읍면 연초방문 일정은 8일 화산면·비봉면, 9일 봉동읍·용진읍, 10일 삼례읍·이서면, 14일 구이면·소양면, 15일 운주면·상관면, 16일 동상면·고산면, 17일 경천면을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 쌀가공협회, 취약계층에 750만원 상당 백미기탁

순창쌀가공협회(회장 최광식)가 6일 순창군청을 방문해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백미 140포(20kg, 75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이번에 전달된 쌀은 협회 회원 1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각각 5포에서 20포씩 모은 것으로, 관내 장애인시설과 노인요양 시설 등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청년회의소 주관 신년인사회 개최...200여명 참석

완주청년회의소(JCI) 주관으로 열린 완주군 신년인사회에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여해 희망찬 새해를 다짐했다.

6일 완주군 어린이체육관에서 열린 '2025년 완주군 신년인사회'에는 유희태 완주군수, 유익식 완주군의회 의장과 완주군의회 의원, 유관 기관·단체장, 이장, 부녀회장 등 각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국민 의례, 신년사, 축사, 덕담 및 건배 제의,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완주군의 도약과 결실을 다

짐했다. 송형섭 완주청년회의소 회장은 "지난 53년간 완주청년회의소는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왔다"며 "2025년에도 청년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모두가 누리는 미래행복도시 완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2025년은 적토성산(積土成山), 모두의 노력이 모여 큰 성과를 이루는 해가 되기를 바란다"며 "완주군 역시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미래행복도시로 도약하는 해가 되도록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완주꽃감축제 이달 10일 군청 대형주차장 일원서 개최

'꽃감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공간' 주제...지역동호회 공연·체험·로컬푸드 판매장 등 운영

달콤하고 쫄깃한 맛이 일품인 완주꽃감을 만날 수 있는 장이 펼쳐진다.

6일 완주군은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완주군청 대형주차장 일원에서 '완주꽃감축제'를 연다고 밝혔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완주꽃감축제는 완주군이 주최하고, 완주꽃감축제제전위원회(정성권 제전위원장·운주농협조합장)와 농업이 주관해 '완주꽃감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공간'이란 주제로 개최된다.

축제는 10일 오전 10시에 지역동호회 공연을 시작으로 '시크릿 박스를 열어라' 이벤트, 꽃감씨 멀리던지기 대회, 우수꽃감 경매 이벤트, 관객 참여게임, 꽃감 골든가요쇼, 어린이 체험장, 개·페막 축하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완주 로컬푸드로 꾸며진 농특산물 판매장, 푸드트럭 먹거리 장터도 운영된다.

완주꽃감은 대둔산의 차가운 신선한 바람으로 만들어져 쫄깃하고 달콤한

두레시 꽃감과 동상면의 깊고 차가운 골짜기에서 만들어져 옛날 임금에게 진상했던 씨없는 고종시 꽃감이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특히, 군은 지난해 두레시, 고종시 꽃감을 대상으로 국가인증인 지리직표시제 등록을 받기도 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올해 더욱 풍성하게 준비한 꽃감축제가 우리 지역 농업의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완주군, 시설관리공단과 공공시설 위수탁 계약 체결

완주군과 완주군시설관리공단이 주요 공공시설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 운영에 돌입했다.

지난 3일 완주군청 전략회의실에서 열린 위수탁 계약에서 양 기관은 ▲공영마을버스 ▲고산자연휴양림 ▲공설장사시설 ▲공영주차장 ▲종량제봉투 판매 등 5개 사업에 대한 공공시설물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은 유희태 완주군수와 소관업무 부서장, 이희수 완주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공단 팀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으며, 완주군 시설관리공단의 2025년 경영목표 및 사업계획 공유에 이어 상호 위수탁 협약서를 교환했다.

완주군시설관리공단은 지난해 10월 24일 공단 설립등기 이후 조직안정화와 내부 업무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



완주군과 완주군 시설관리공단이 주요 5개 사업 공공시설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 운영에 돌입했다.

고, 대상사업에 대한 시범기간을 운영했다. 또한, 군 소관부서와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등 현장중심의 긴밀한 협조 속에 인계·인수를 효율적으로 완료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이희수 완주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지역활성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완주 청소년문화의집, 용봉초서 진로박람회 열어

완주군 청소년문화의집(집장 최정선)이 봉동읍 용봉초등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여울림마당 '우리들의 진로박람회'를 열었다.

6일 완주군 청소년문화의집은 최근 공직자, 예술, 공예, 4차산업, 인공지능, 친환경 등 다양한 주제로 총 17개의 진로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드론 ▲미술사 ▲웹툰작가 ▲응급구조사 ▲뷰티전문

가 ▲경호원 ▲경찰관 ▲간호사 ▲아나운서 ▲화가 ▲패션디자이너 ▲떡공예 진로체험과 더불어 공예체험이 이뤄졌다.

최정선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 관장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당차게 꿈을 펼쳐나갔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학교와 연계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 주생면 기초생활거점센터 현판식...지역역량강화 '구심점'

주생면 기초생활거점 주민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6일 주생면행정복지센터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남원시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으로 추진 중인 주생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은 농촌공간 정비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농촌 유희시설 활용 등 주민들이 추진해야 할 지역역량 강화사업의 구심점이 될 예정이다.

이상봉 주민위원장은 기초생활거점센터 현판식 행사를 계기로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 위해 주민위원의 운영·관리, 사업홍보 및 활성화 등 사업발전을 위한 역할을 전담하고, 각종 사업추진 관련 업무를 성공적으로 주도해 갈 것을 다짐했다.

이정찬 주생면장은 주민위원회와 서로 협력해 농촌공간을 창고와 휴양 공간으로 확대하고 독자적인 계획 수립 공간으로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지역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재경진안군민회 이용진 회장 성흥수 상임고문, 각 5백만원 기탁

지난 6일 열린 2025년 진안군 신년인사회에서 재경진안군민회 이용진 회장과 성흥수 상임고문이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각 50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이용진 회장과 성흥수 상임고문은 "비록 우리 향우회는 고향을 떠나 먼 곳에 있지만, 언제나 고향인 진안군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잊지 않고 있다"라며, "진안군의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기부에 동참해 진안군에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멀리서도 진안을 잊지 않고 고향을 사랑하는 재경진안군민회 회원분들의 따뜻한 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에게는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담례품이 제공되며,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기부는 "고향사랑 e음"이나 전국 농협은행을 통해 가능하다.

/진안=전철빈 기자



한삼코리(주), 전주시청 찾아온기 가득 겨울이불 100채 나눔

수질·환경연구 전문기업인 한삼코리(주)는 6일 전주시청을 찾아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달라며 겨울이불 100채(600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

이날 전달된 물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과 사회복지 시설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조민수 한삼코리(주) 대표이사는 "작은 나눔이지만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이웃들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매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주신 한삼코리(주)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추운 겨울 나눠주는 따뜻한 마음이 어려운 이웃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남원시 양쌍복 작가, 사회공헌 대상 수상

돌 모자이크 벽화 통해 농촌관광명소로 발돋움...사회적 연대·상생 가치 일깨워줘

남원시 수지면 산촌 마을의 양쌍복 작가가 지난 2024년 대한민국 사회공헌 대상(시사투데이 주최·주관)을 수상했다.

양 작가는 돌 모자이크 벽화를 통해 산촌마을을 농촌관광명소로 발돋움하게 했다. 특히 지난달에는 수백 개의 돌을 붙여 높이 9m, 폭 4.5m 달하는 기린 조형물을 마을 입구에 세웠다. 이 조형물은 이제 산촌마을의 상징 조형물이 됐다.

대한민국 사회공헌 대상은 시



남원시 수지면 산촌 마을의 양쌍복 작가가 지난 2024년 대한민국 사회공헌 대상을 수상했다.

사투데이가 주최·주관하며, 동아일보를 후원하는 신문사다.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개인과 단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권위 있는 상을 받게 된 양쌍복 작가는 "이러한 상을 받게 돼 영광이다.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하다"고 밝혔다.

양쌍복 작가의 작품과 활동은 단순한 예술적 성과를 넘어, 사회적 연대와 상생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주)우신포그먼트, 익산시에 이웃돕기 1천만원 나눔 실천

"지역사회와 희망찬 새해 함께하기 위해 기부 결정해"...저소득 가구에 지원 예정

익산시는 (주)우신포그먼트(대표 장성숙)가 시청을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후원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 가구에 지원될 예정이다.

(주)우신포그먼트 익산공장 장덕인 공장장은 "지역사회와 희망찬 새해를 함께 하기 위해 기부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에서 받은 관심을 나누고자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지역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후원해 주시는 (주)우신포그먼트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답했다.

한편, (주)우신포그먼트는 염료와 안료, 기타 조색제 제조업체로 서울특별시에 본사를 두고 있다. 2022년 익산 저소득 가구를 위해 1,000만 원을 기탁했으며, 2023년은 다이로움 나눔공간에 1,000만 원을 후원한 바 있다. 지난해 원광대학교에 장학금 5,000만 원을 전달하고 수해피해 지



익산을 위해 성금 3,500만 원을 기탁 하고 있다. 하는 등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

/익산=최준호 기자



(주)씨미트C.C, 진안에 장학금 590만원 전달

진안 부귀면에 소재한 (주)씨미트C.C(회장 김장수)에서 지난 3일 진안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금 590만원을 기탁하며 지역 학생

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했다.

기부금은 지난 2024년 김장 축제 기부행사를 통해 얻어진 수익금으로 전액을 지역 인재 육성과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진안 사랑장학재단에 전달한 것이다.

이날 김장수 회장은 "내수 경기 침체, 갑작스러운 흑한기에도 불구하고 지역 사회와 더불어 살

아가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진안의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전춘성 이사장은 "연말을 맞이해, 우리 진안군의 아이들을 위해 기부해 주시는 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지역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지역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 지역의 미래가 더욱 밝아질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진안=전철빈 기자



순창출신 서영아씨, 고향사랑기부 500만원 전해

순창군은 6일 팔덕면 출신인 서영아 씨가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서영아 씨는 (주)정문과 (주)대성전기의 대표인 서동준 씨의 이들로, 2023년에 이어 올해까지 꾸준히 기부하며 고향 순창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서 씨는 이번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으로 받은 담례품인 순창사랑상품권(150만원 상당) 전액을 팔덕면 작은도서관의 도서 구입비로

재기탁하며 의미 있는 나눔을 실천했다.

서영아 씨는 "앞으로도 고향을 위한 기부와 나눔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서영아 씨의 3년 연속 기부는 순창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여주며 다른 이들에게 귀감이 된다"면서, "이 소중한 마음을 바탕으로 더욱 살기 좋은 순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무주군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성금 2백만원 전해

무주군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위원들이 지난 6일 무주군청을 찾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써 달라며 성금 2백만 원을 기탁했다.

이재국 위원장은 "새해가 됐지만 여전히 춥고 어려운 주변의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하는 위원들의 마음을 모아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더불어 "우리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또 용기를 내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단체에게 나눔과 기부 실천에 더욱 힘써 상부상조의 미덕을 널리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는 주민자치단체 활성화와 무주군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 '더불어 행복한 무주'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무주=최희호 기자

전국이동장연합회 부안군지회, 장학금 100만원 기탁

사)전국이동장연합회 부안군지회(회장 구락서) 회원 일동은 최근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을 방문해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구락서 회장은 "전국최초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하는 장학사업에 적극 동참하고자 회원들의 뜻에 따라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에 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지역의 학생들이 올바른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권익현 이사장은 "지역인재 육성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이동장연합회에서 기부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기부해 주신 소중한 장학금은 대학교 전 학년 반값등록금 장학사업 등 장학사업에 잘 쓰일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봉남면 전 이장협의회회장 홍문섭씨, 1백만원 쾌척

김제시 봉남면 행정복지센터는 홍문섭 전 이장협의회회장이 6일 소외되고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 지원에 써달라며 100만원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 했다고 밝혔다.

홍 전 회장은 지난 2023년 130만원, 2024년 150만원에 이어 올해도 성금 기탁에 참여하고 있으며, 평소에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려운 이웃을 발굴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봉사정신을 이어가고 있다.

나성희 봉남면장은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고,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꾸준히 나눔활동을 벌여온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Advertisement for Jeonbuk Times newspaper featuring a person in winter gear and the text: '전북도민의 희망찬 미래의신문 전북타임스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nd website URL 'https://www.jeonbuktimes.co.kr'.

〈一事一言〉



윤석열은 왜 '비상대권'이 필요했을까?(1)

강수돌
고려대 명예교수

“대한민국이 어느덧 가짜들이 판치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부정선거는 팩트입니다. 부정선거는 저질러졌고, 범죄자는 처단해야 합니다.”
이 말만 보면 '명태균 황금폰'으로 드러난,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 내부 경선 내지 2000년과 2024년 총선 당시 공천 관련 부정선거를 폭로하는 것처럼 들린다. 그러나 이 발언은 대표적인 '부정선거 음모론자'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박근혜 탄핵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가 2024년 12월 19일 국회에서 행한 기자회견의 일부다. 그는 계속한다.
“선관위의 부정선거 주동자 여러분, 그동안 남모르게 자행해 왔던 선거 조작이 대통령의 특단 조치로 인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포렌식으로 모든 것이 다 들통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보는 순간, 나는 ‘하~’라며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돈, 남 말하네!’란 속담이 떠올랐다. 섬뜩했던 1980년대의 공안검사 출신 황교안은 윤석열의 12·3 내란사태를 비호하고 “부정선거는 팩트”라 강변한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의 ‘12·3 내란사태’가 오히려 ‘가짜뉴스’로 둔갑한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 돌아가신 어머니 식으로, ‘꽃구멍이 두 개니까 숨을 쉬지!’
한심하게도, 아니, 지당하게도, 12·3 내란 비호 정당(?)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황교안에

게 기자회견장을 제공했다. 야당과 일반 시민들은 “국민의힘이 의도적으로 황 전 총리에게 판을 깔아준 것” 또는 “황당한 부정선거론과 내란에 동조하는 행위”라 보지 않을 도리가 없다. 다행히 2024년 마지막 날 오전 9시쯤 윤석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이제 내란수괴 체포와 구속의 시간! 윤석열은 형법상 내란의 주체요, 헌법상 파면 대상이다. 이어 같은 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권영세 (국회)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민중) 대표가 만나 국정협인재(人災)인 ‘제주항공 참사’ 수습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그러나 흔히 말하듯,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 도대체 언제가 끝인가? 만일 민주주의를 ‘제도’의 관점(예: 현재 관점)이 아닌 ‘과정’의 관점에서 본다면, 솔직히 ‘끝’은 없다!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우리가 계속 만들어 가야 하는 게 민주주의다. 즉, 민주주의는 늘 깨어 있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과정이다.
한편, 12·3 내란 사태를 다시 보면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한다. 그것은 윤석열이 12월 3일 밤 10시 25분쯤 비상계엄을 발동했을 때의 ‘선포문’엔 없던 것이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간 뒤 발표한) 일종의 ‘변명문’엔 새로 등장했다는 점! 바로 ‘부정선거론’이다.
일단 그 선포문(12월 3일)부터 보자.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뒤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그리하여, 최근 공개된 <오징어게임II>처럼, 게임의 패자들은 모두 몰살당할 뻔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 국회의원과 그 보좌진들, 깨어 있는 시민들의 행동하는 양심이 힘을 합쳐 3시간도 채 안 돼 12·3 비상계엄을 조기 해제시켰다. ‘민중의 힘’이자, 과정으로서의 민주주의! 천만 다행이다. 당황한 윤석열은 12월 4일 오전 4시경 공식 ‘해제 선포’를 했다. 그럼에도 국민적 불안과 저항이 이어지자 12월 7일엔 ‘사과문’을 발표했다. 사과문의 내용은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비록 영혼이 담기지 않았으나 사과사과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수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저항하며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내란 수괴’에 대한 탄핵이 거듭 추진되자 12월 12일 마침내 ‘변명문’을 발표한다. 그런데 바로 그 때 이상한 게 ‘특~’ 튀어 나온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라고 운을 뗀 뒤 윤석열은 이렇게 말한다. “작년(2023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앞서 말한 ‘부정선거론’이 튀어나온 것!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게 되고 한발 물러섰습니다.”<계속>

본 칼럼은 시민인론 민들레에게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과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사회복지는 왜 확대되어야 하는가

문명 국가에서 사회복지란 단순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국가의 경제적 안정과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중요한 기둥이다. 이러한 복지 제도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며 사회적 연대감을 강화하고 나아가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사회복지란 필요하며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사회복지란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대 사회는 경제적, 사회적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격차는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사회복지 제도는 빈곤층과 소외 계층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삶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체 사회의 안정성과 통합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사회복지의 경제적 효과를 통해 국가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다.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된 사회에서는 국민들이 더 큰 경제적 위험을 감수하고 창의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생산성 향상과 함께 국가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예컨대 실업급여나 건강보험과 같은 복지제도는 경제적 충격에 대한 완충 작용을 제공, 경기 변동의 영향을 줄이고 국민들이 소비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결국 경제 전반의 안정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진다.
나아가 사회복지란 인구 고령화 문제

에 대응하는 데 필수적이다. 대다수 문명 국가가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사회적,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의료비와 연금 수요가 급증하며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국가나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사회복지 제도를 확대해 노인층을 위한 의료 서비스와 연금 제도를 강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는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젊은 세대의 부담을 줄여 세대 간 갈등을 줄이는 데도 기여한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한다. 모든 국민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중 하나이며 사회복지 제도는 이를 실현하는 수단 중 하나다. 빈곤, 실업, 질병 등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사회복지란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이러한 안전망이 없다면 사회는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냉혹한 경쟁의 장이 되어버린다.
이로 인해 사회복지란 문명국가에서 필수적이며 그 범위와 질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경제적 불평등의 완화, 사회적 안전망의 강화, 인구 고령화 문제의 대응,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 보장은 모두 사회복지가 지향해야 할 목표이다.
국가나 지방정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회복지란 확대해야 한다. 사회의 근간인 사회복지란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이자 의무이며 이를 확대함으로써 더 나은 사회, 더 공정한 사회,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문화재 열전

함벽정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 분류 - 조경건축, 누정
- 지정일 - 1986년 9월 8일
- 시대 - 일제강점기
- 소재지 - 익산시 왕궁면 동용리 산572-4번지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가-00022(윤리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김관춘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사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양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주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사-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경영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오늘의시

당신 없는 하루 / 김용택

해 뜨니 앞 강물은 저리 흐르요 당신 떠난 이 나라 쳐다볼 곳 없는 내 눈길아 먼 허공을 헤매이고 헛헛한 마음도 이리 기댈 곳 없으니	이 맘이 시방 맘이 아니요 차라리 이 몸이 맘 이 강물이 다 가져가 불고 저 강물에 얼른얼른 오늘 해도 저물면 좋겠소.
---	---

시인 약력 : 1948년 임실 진매마을 출생. '섬진강 시인'이라는 별칭이 있다. 순창농림고를 졸업한 뒤 스물한 살에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다. 자신의 모교이기도 한 임실 마암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시를 썼다. 2009년 정년 퇴임했다. 1982년 '창작과비평사'에서 펴낸 21인 신작

시집 '꺼지지 않는 햇불'에 '섬진강 1'의 8편의 시를 발표하면서 등단했다. 1986년 '김수영문학상', 1998년 '소월시문학상'을 수상했다. 2001년 독립단편영화 '둘'에 이어 2010년 이창동 감독의 영화 '시'에 조연으로 출연하기도 했다.

謹賀新年

2025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도 독자여러분 가정에 행복가득하고, 사랑이 넘치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전북타임스 임직원 일동-

부안군문화재단, 지난해 군민 5명중 1명 만나

“부안군민 1만명 만나겠다” 포부 ... 지난해 1만 2천명 만나

부안군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설립된 (재)부안군문화재단(이하 재단)이 출범 4년차에 접어들었다.

지난해 재단은 출연금 내 사업비 규모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공모사업을 통해 국도비 약 8억원을 유치하였으며, 전년 대비 지역민 문화향유계층 15%로 확대하며 군민의 문화향유권 신장 및 지역 자원의 다각적 콘텐츠 개발 활용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지난해 환경과 생태영역에서 시도한 프로그램 중 선도적인 사례를 창출하여 지역문화에 가능성을 보이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새해를 맞아 2024년 부안군문화재단의 주요 성과를 돌아보았다.

◆ 2023년 대비 지역민 문화향유계층 15% 확대

지난해 4월, 마실영화관 재개관 운영을 통해 인근 대도시 유출 1순위인 대중영화 상영으로 기초적인 문화권을 확보했다.

또한, 지난해 5월 17일부터 26일까지 2주간에 걸쳐 진행된 ‘2024 공예주간’ 행사는 부안청자박물관, 내소사, 변산 해수욕장, 격포 채석강 등 4개의 관광지에서 약 1만여명의 지역민과 관광객들을 만나며 공예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나볼 수 있는 체험과 마켓, 전시 등의 행사가 진행됐다.

지난해 7월부터 부안 해돋마루에서 진행된 생태녹색관광활성화 <모두의 정원 해돋마루>를 통해 그린아카데미, 마실정원사, 사운드워킹, 에벌레캠핑 등 은가죽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지난해로 2회를 맞이한 <한국동시축제>와 <무경계 페스티벌>은 재단의 핵심적인 사업으로 가족단위로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진행됐다.

지난해 12월 진행된 “생활문화축제 꿈의날갯짓”에서는 지역민과 만나는 접촉을 다양하게 진행하기 위해 면 단위, 마을 단위로 진행된 <찬란한 할머니들 시즌2>, <부안 꿈의 무대> 참여자의 공연과 생활문화센터 동아리의 축하공연 등으로 펼쳐내었다. 무대를 동경해오던 참여자들의 꿈을 향한 날갯짓을 통해 감동과 감격이 현장을 가득 채웠다.

재단은 지난해 2년째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가 적은 면 단위 마을을 중심으로 다듬이 난타, 합창, 연극 등의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용수업이 진행된 “부안 꿈의 무용단”, 6개월간 한 달에 1회씩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골골솨솨’ 등으로 다양한 계층의 지역민을 만났다.

◆ 지역의 문화예술생태계의 자생력 제고

지난해 재단은 지역 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의 사업 참여율을 높이고자 다양한 교류와 협력의 기회를 만들어내며, 총 405명의 예술인(지역민 활동가 포함)과 민간 예술단체 및 기관 42개가 협력하는 등 작년 예술인 참여지수 대비 19%가 증가했다.

지역 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의 역량강화 지원 <하이라이트>는 재단과 예술인 간의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기초예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8명의 예술인과 3개의 단체가 참여하며, 결과물을 올해부터 석정문학관 기획전시실에서 전시할 예정이다.

또한, <노을버스킹>, <지역관광분야 활동가 양성과정>을 통해 청년 문화기획자, 청년 예술인, 지역활동가 등 지역의 중추적인 문화활동가가 될 인적 자원을 발굴하고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성장의 계기를 제공했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중 <예술로 어울림>을 통해 집이 작업실, 집이 판화실, 집이 도서관 등 집이 예술공간이 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전문 예술인이 지역의 문화예술교육가로 역할을



▲ 내소사 - 청자다기를 이용한 차명상

전환 확대해 보는 기회를 마련했다.

나아가 부안장애인복지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예술가 5인과 함께 지역의 아름다운 관광지를 둘러보며 그림으로 담아낸 <모두의 여행 부안> 전시를 진행하여 장애인예술가의 존재를 조명하기도 했다.

◆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의 결합 및 확장

재단은 해돋마루, 당산, 부안 청자와 같은 부안 지역만의 문화적 자원과 더불어 시인 신석정 등 인물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에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여왔다.

재단이 위탁운영 중인 석정문학관 및 부안역 사문화관 등 텍스트 중심의 문화공간을 공연, 시

각예술 등과 융합하는 시도를 계속하였으며, 올해는 신석정 서거50주기를 맞이해 특별기획전을 진행했다.

신석정 서거50주년 기념 특별전시 <아름다운 지구>는 더 나은 사회를 꿈꾸는 시인의 생태주의적 시선을 조명해 본 전시로, 비사벌초사 정원과 자택 사진, 생전에 기르던 난초 등을 전시해 문화예술로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해로 2회째 맞이한 신석정장작음악 공모전은 51개의 장작곡을 발굴하는 성과를 얻었다. 그 중 5개의 수상작이 선정됐으며, 추후에 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뮤직비디오와 함께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역사문화관 기획전시실에서는 김억 목판화작가의 <부안에 산다> 전시와 김순임 작가의 <플라스틱 풍경이 된 변산> 등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예술가를 결합하여 다채로운 문화예술 콘텐츠로 풀어냈다.

부안군문화재단 전민정 사무국장은 올해에는 “문화예술 접근이 질실한 지역민 계층을 발굴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재단 운영 시설의 연계 활동을 진행해 예정화를 통한 성장 로드맵을 준비중이며 재단만의 특화된 사회공헌 프로그램 및 ESG 경영 프로그램을 실천함으로써 지역 내 선도적·혁신적인 재단의 이미지와 역할을 부각시키겠다”고 밝혔다. /부안=신상수 기자



▲ 모두의 정원 해돋마루 에벌레 캠핑



▲ 신석정 서거 50주년 기념전시



▲ 제2회 한국동시축제